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99-135
<https://doi.org/10.29212/mh.2024..133.9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신라 선덕·진덕왕대 김유신의 활동

- 대백제전을 중심으로 -

김덕원 | 명지대학교 강사

- 목 차
1. 머리말
 2. 선덕왕대 후기의 대백제전 주도
 3. 진덕왕대 초기의 공세 강화
 4. 맺음말

초 록 신라 선덕왕대에 김유신의 활동은 642년(선덕왕 11)에 백제의 침입으로 대야성이 함락된 이후 압량주 군주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김유신이 대백제전을 주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후 대백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642년 이전까지 신라는 방어적인 입장이었지만,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된 이후인 644년부터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이후 진덕왕대에 김유신의 활발한 활동으로 나타났다.

진덕왕대의 대백제전은 647년(진덕왕 원년)부터 649년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648년의 대백제전은 김춘추가 추진하였던

대당외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었고, 이 계획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김유신의 대백제전에서의 활동은 김춘추의 대당외교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나당동맹이 성립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648년에 대야성의 탈환을 계기로 신라는 대백제전에서의 우위를 점하였고, 신라와 백제의 전세는 역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유신은 백제에게 병력면에서 큰 피해를 입히면서 이후 전쟁의 판세에 영향을 주었다. 결국 백제는 많은 병력을 손실하며 전력이 약화되었고, 이것은 이후 백제 멸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 김유신, 대백제전, 대야성, 김춘추, 대당외교

(원고투고일 : 2024. 10. 4.,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8.)

1. 머리말

김유신(595~673)은 신라의 진평왕대부터 문무왕대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 활동하였다. 이 시기에 신라는 대내적으로 상대에서 중대로 왕통이 변화하였고, 대외적으로 삼국통일과 그 연장으로써 나당전쟁이 발생하였다. 김유신은 이 시기에 활동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김유신의 생애와 활동은 시기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으며,¹⁾ 그의 연령과 활동을 고려하면 진평왕대를 기준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진평왕이 죽은 632년(진평왕 54)에 김유신은 38세인데, 이때는 그의 생애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김유신의 활동은 진평왕대를 기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²⁾ 그 이후는 선덕·진덕왕대와 무열·문무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의 시기들은 김유신의 연령에서 각각 약 20년씩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의 활동과도 일정하게 연관되었다.³⁾

-
- 1) 김유신의 생애와 활동은 대체로 3시기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 신형식은 김유신의 생애를 제1기(10~20대), 제2기(30~40대), 제3기(50~70대)로(신형식, 『삼국사기 연구』, 일조각, 1981, 342쪽), 정구복은 성장기, 장년기, 노년기로(정구복, 「김유신(595~673)의 정신세계」, 『유산강인구교수정년기념 동북아고문화논총』, 민창문화사, 2002), 이상훈은 김유신의 활약을 본격적으로 전쟁에 투입되는 시기, 압량주 군주로서 군사적 입지를 다지는 시기, 군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활약하는 시기로 구분하였다(이상훈, 「삼국통일기 화랑정신과 김유신의 리더십」, 『국학연구론총』 17, 2016, 34쪽 주 18) 참조).
 - 2) 김덕원, 「신라 진평왕대 김유신의 활동」, 『신라사학보』 10, 2007 ; 『신라 상대 정치와 불교』, 문현, 2021, 118쪽.
 - 3) 김유신은 선덕·진덕왕대에는 38세~60세이고, 무열·문무왕대에는 60세~79세이다. 또한 그의 활동은 선덕·진덕왕대와 무열·문무왕대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김유신의 생애와 활동을 구분하였던 선행 연구성과의 시기 구분과도 차이가 있다.

김유신에 대한 기록은 동시대의 다른 어떤 인물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생애에서 누락된 부분도 적지 않다. 즉 595년(진평왕 17)에 태어난 이후부터 609년(진평왕 31) 15세에 화랑이 되기 이전까지의 14년과 612년(진평왕 34) 18세에 화랑의 수련을 끝낸⁴⁾ 이후부터 629년(진평왕 51) 35세에 낭비성 전투에 출전하기 이전까지의⁵⁾ 17년, 그리고 낭비성 전투 이후 642년(선덕왕 11) 48세에 대야성이 함락할 때까지 13년의 기록이다. 다시 말하면 김유신의 생애에서 약 45년의 기록이 누락되었으며,⁶⁾ 이 기간은 김유신의 생애와 활동에서도 중요한 시기였음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김유신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⁷⁾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김유신의 활동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김유신 개인보다는 선조나 후손들이 포함된 그의 家系, 즉 ‘가야계’의 문제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셋째,

4) 일반적으로 화랑은 15세부터 18세까지 약 3년 정도 수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기동, 「신라 화랑도의 사회학적 고찰」, 『역사학보』 82, 1979 ;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339~340쪽).

5) 『삼국유사』에는 김유신이 김춘추의 아이를 가진 누이동생 문희를 불태우려고 하였던 기록이 있다(『삼국유사』 권1, 기이2, 태종춘추공). 문무왕은 626년(진평왕 48)에 태어났기 때문에(이영호, 「신라 문무왕릉비의 재검토」, 『역사교육논집』 8, 1986, 68쪽), 이 기록은 적어도 625년 무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김유신은 31세였고, 낭비성 전투에 출전하기 전이었다.

6) 그렇다고 이 기간 동안에 김유신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그의 활동이 신이하고 과장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기록으로 전하기에는 부적절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김춘추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김춘추도 625년 무렵에 문희와의 혼인하는 기록 이외에 642년에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한다. 김춘추가 이때까지 기록이 없는 것은 아무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기록이 누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김덕원, 『신라중고정치사연구』, 경인문화사, 2007, 180~183쪽 참조.

7) 김유신에 대한 연구성과는 김수태, 「신라의 삼국통일과 김유신」, 『영남학』 80, 2022, 117~119쪽 참조.

김유신의 활동보다는 흥무대왕 추봉과 관련된 문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징들이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김유신의 활동을 연대기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김유신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활동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유신의 활동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유신의 생애에서 후반기에 속하는 선덕·진덕왕대 그의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김유신 생애 후반기의 절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주목되는 것은 선덕왕대와 진덕왕대 김유신의 활동에서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기 그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각 시기의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후 무열·문무왕대와의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의 연구성과에서 이미 다루어진 분야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외하고, 다른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선덕왕대 후기의 대백제전 주도

선덕왕대에 김유신의 활동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642년(선덕왕 11)에 백제의 침입으로 대야성이 함락된 이후부터이다. 이것은 629년(진평왕 51) 35세 때 낭비성 전투에 출전한 이후 13년

만의 기록이다. 선덕왕대의 백제 침입은 642년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당시 신라는 백제 무왕대부터 침입을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무왕의 뒤를 이은 의자왕대에도 지속되었다.⁸⁾ 그러나 의자왕의 침입은 이전의 무왕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특히 642년에는 신라의 미후성 등 40여 성을 함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쪽 변경의 전략적인 요충지인 대야성까지 함락시켰다.⁹⁾ 이에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사신으로 파견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유신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A-1. 겨울에 왕이 장차 백제를 쳐서 대야성의 싸움을 보복하기 위해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군사를 청하였다. ... 춘추가 몰래 사람을 시켜 본국 왕에게 알리니, 왕이 ①대장군 김유신에게 명하여 ②결사대 1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하였다. 유신이 행군하여 한강을 넘어 고구려 남쪽 경계에 들어가니, 고구려 왕이 이를 듣고 춘추를 놓아 돌려보냈다.¹⁰⁾

2. 선덕대왕 11년 임인에 백제가 대량주를 격파하였을 때 춘추공의 딸 고타소랑이 남편 품석을 따라 죽었다. 춘추가 이를 한으로 여겨 고구려에 청병하여 백제의 원한을 갚으려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춘추가) 장차 떠나려 할 때 유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공과 한 몸이고 나라의 팔다리이다. 지금 ①내가 만약 저곳에 들어가 해를 당하면, 공은 무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유신이 말하기를 “공이 만일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의 말발굽이 반드시 고구려와 백제 두 임금의 뜰을 짓밟을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나라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8) 박종욱, 『백제 사비기 신라와의 전쟁과 영역 변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1.

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시월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년 8월.

1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겨울.

니까?”라고 하였다. 춘추가 감격하고 기뻐하여 공과 더불어 함께 손가락을 깨물며 피를 마시며 맹세하기를 ②“내가 날짜를 계산하여 보건대 60일이면 돌아올 것이다. 만약 이 기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만나 볼 기약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서로 작별하였다. 후에 유신은 ③압량주 군주가 되었다. 춘추가 사간 훈신과 함께 고구려에 예방하러 갈 때 대매현에 이르니, 고을 사람 사간 두사지가 청포 300보를 주었다. … 춘추가 고구려에 들어간 지 6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유신은 국내의 ④용감한 군사 3천 명을 선발하고, … 드디어 왕에게 청하여 군사 출동 기일을 정하였다. 그때 고구려 간첩 승려 덕창이 사람을 시켜 이를 (고구려) 왕에게 아뢰었다. (고구려) 왕은 이미 춘추의 맹서를 받았고, 또 간첩의 말을 들었으므로 (춘추를) 더 잡아 둘 수가 없어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 유신은 (선덕왕 11) ⑤압량주 군주가 되었다가 13년에 소관이 되었다. … 11)

3. (11년) 유신을 압량주 군주로 삼았다.¹²⁾

위의 기록은 김춘추의 고구려 사신 파견에 대한 내용이다. 사료 A-1보다는 A-2가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김춘추의 대고구려 외교는 실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김춘추는 고구려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영토 반환 문제로 오히려 감금되었다. 사실 김춘추는 고구려 사행이 신변상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료 A-2-①에서 김춘추가 김유신에게 “내가 만약 저곳에 들어가 해를 당하면[我若入彼見害]”이라고 말하였던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춘추가 고구려로 떠나기 전에 김유신을 만났던 것은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만약의

11)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1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사태에 대비하여 김유신이 무력으로 구원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춘추는 이러한 자신의 속마음을 은밀하게 내비쳤고, 이에 김유신은 그의 의중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화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이 주목되는데, 먼저 당시 김유신이 차지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위상에 대한 문제이다. 김유신에 대한 기록은 629년(진평왕 51) 낭비성 전투에 출전한 이후부터 642년에 대야성이 함락할 때까지 전하지 않는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김유신은 사료 A-1-①에는 대장군으로, A-2-③·⑤와 A-3에는 압량주 군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김유신은 김춘추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료 A-1-②에는 결사대 1만 명, A-2-④에는 용감한 군사 3천 명을 모집하고, 선덕왕에게 직접 출전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당시 김유신의 정치적인 위상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특히 631년(진평왕 53)에 발생하였던 칠숙의 모반 사건은 김용춘과 김서현이 진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¹⁵⁾ 김유신은 여기에 참여한 것 같다. 그리고 이후에도 신라 정계에서 활동하였던 것으

13) 이문기는 이 시기에 김유신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출신 가문의 한계와 골품제로 인한 제약으로 무장으로서 제대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이문기, 「648649년 신라의 대백제전 승리와 그 의미」, 『신라문화』 47, 2016, 213~214쪽).

14)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 11년 겨울의 기록에는 고구려의 보장왕이 평소에 김춘추의 명성을 들었다고 기록되었다. 이것은 당시 고구려에서 김춘추에 대한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김유신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특히 김유신은 629년 낭비성 전투에 참전하여 승리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는 더 알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김춘추가 신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구려에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맹서한 것과 김유신이 김춘추를 구원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침입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는 형식적인 이유였고, 후자가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5) 김덕원, 앞의 책, 2007, 140쪽.

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기록에는 전하지 않지만, 김유신은 629년 낭비성 전투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였기 때문에 압량주 군주에 임명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김춘추가 고구려 사행에 필요한 기간을 미리 계산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사료 A-2-②에서 김춘추는 고구려 사행에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였다. 60일이라는 기간은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왕복하는 기간과 고구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김춘추가 사행 기간을 미리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당시 삼국은 승려 등을 첩자로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첩보전을¹⁶⁾ 전개하였고, 이들은 상대국을 왕래하면서 정보 수집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아마도 김춘추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행 기간을 미리 계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춘추 역시 대매현을¹⁷⁾ 거쳐 고구려 경내에 들어간 이후부터 평양성으로 가는 교통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김춘추가 수집한 정보들은 662년(문무왕 2) 김유신이 평양으로 군량을 수송할 때 중요하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첩자와 첩보전에 대한 연구성과는 直木孝次郎, 「古代朝鮮における間諜について」, 『檀原考古研究所論集』 5, 吉川弘文館, 1979 ; 김복순, 「삼국의 첩보전과 승려」, 『가산이지관스님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문화사상사』 (상), 1992 ; 『한국 고대불교사 연구』, 민족사, 2002 ; 김영수, 「고대 첩자고」, 『군사』 27, 1993 ; 이도학, 「눈부신 신라의 첩보공작」, 『한국고대사 그 의문과 진실』, 김영사, 2001 ; 강준식, 『우리가 몰랐던 삼국시대 스파이』, 아름다운책, 2004 ; 김영수, 「고대 첩자연구 시론」, 『백산학보』 77, 2007 ; 김영수, 「김유신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관한 일연구」, 『군사』 62, 2007 참조.

17) 대매현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신라와 고구려를 잇는 교통로상에 위치하는 고구려 영역에 가까운 곳이나(김창석, 「신라 현재의 성립과 기능」, 『한국고대사 연구』 48, 2007, 136쪽) 또는 임진강 근처에 위치한 지명(전덕재, 「신라 중고기말중대 초 현재의 실지와 지방관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 58, 2021, 270쪽)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춘추의 고구려 사행 무렵에 김유신은 압량주 군주가 되었다. 그런데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된 시기를 사료 A-2-③과 A-3에는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기 전으로, A-2-⑤는 신라로 돌아온 후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된 시기는 김춘추의 고구려 사행 전과¹⁸⁾ 사행 후로¹⁹⁾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A-2-⑤의 기록은 뒤이은 13년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앞의 A-2-③의 기록을 다시 삽입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된 것은 김춘추가 없는 상황에서 백제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김유신은 김춘추의 고구려 사행 이후에 백제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량주 군주가 된 것이다. 이것은 김유신이 대백제전을 주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후 대백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비록 기록에는 없지만, 김춘추는 고구려에 사행으로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643년에 신라로 돌아온 이후 김유신과 다시 만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649년에 당에서 돌아온 이후 김유신을 만났던 사료 G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춘추는 선도해 등 고구려의 유력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연개소문 정변 이후의 고구려 국내 정세와 대당 관계 등의 대내외적인 정보를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려동맹에 대한 첩보도 확인하였던 것 같다.²⁰⁾ 김춘추는 이러한 내용을 김유신에게 알려면서 백제의 침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 박승범, 「김유신의 생애와 역사적 의의 -그 가계와 활동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1, 2015, 374쪽 ; 이문기, 앞의 논문, 2016, 215쪽 ; 이상훈, 앞의 논문, 2016, 41쪽.

19) 주보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 내정」 『한국학논집』 20, 1993 :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77쪽 주 21) 참조.

20) 김덕원,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 『민족문화연구』 95, 2022a, 20~21쪽.

642년에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된 이후부터 대백제전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B-1-1. 가을 9월에 왕이 유신을 대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쳐서, 크게 이겨 7성을 뺏었다.²¹⁾

1-2. 가을 9월에 신라 장군 유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 와서 7성을 뺏어갔다.²²⁾

1-3. (13년) 가을 9월에 왕이 명하여 상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의 가혜성·성열성·동화성 등 7성을 치게 하여 크게 이겼다. 이로 인해 가혜진을 개통하였다.²³⁾

2. 을사년 정월에 (유신이 왕경으로) 돌아와 왕을 뵈기도 전에 변경을 지키던 관리[封人]가 급하게 백제의 대군이 와서 우리 매리포성을 공격한다고 보고하였다. 왕은 또한 유신을 상주장군으로 임명하고, (백제의 공격을) 막도록 하였다. 유신은 명을 받자마자 곧바로 말을 타고 아내와 자식을 만나지 않고 (매리포성으로 가) 백제군을 맞아 싸워 물리쳐 2천 명의 목을 베었다.²⁴⁾

3. 3월에 (유신이) 돌아와 왕궁에서 복명하고 미처 집으로 귀가하지도 못하였는데, 또한 급하게 백제 군사가 그 국경 지역에 출동하여 주둔하고 장차 크게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침략하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 국경에 이르자, 백제인들이 우리 군대의 방위 태세를 바라보고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곧바로 물러갔다.²⁵⁾

4-1. 여름 5월에 (당) 태종이 몹소 고구려를 정벌하였으므로 왕이 군사 3만 명을 내어 (당 태종을) 도왔다. 백제가 그 빈틈을 타서 나라 서쪽의 7성을 뺏어갔다.²⁶⁾

2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3년 가을 9월.

22)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4년 가을 9월.

23)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24)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25)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2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4년 여름 5월.

4-2. 여름 5월에 (당) 태종이 친히 고구려를 정벌하면서 신라에서 군사를 징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틈을 타서 신라의 7성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신라는 장군 유신을 보내 쳐들어 왔다.²⁷⁾

위의 기록은 642년 이후 대백제전에 대한 내용이다.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642년 이전과는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신라는 642년 이전까지 백제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으며 방어적인 입장에 처하였지만,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된 이후인 644년(선덕왕 13)부터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즉 사료 B-1~3의 기록과 같이 644년 9월에 김유신은 백제를 공격하여 가혜성 등 7성을 빼앗았고 가혜진을 개통하였다.²⁸⁾ 이것은 선덕왕대에 신라가 백제를 처음으로 공격한 기록이다. 그러나 645년 5월에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신라는 3만 또는 5만²⁹⁾ 명의 군사를 파견하였다. 이 틈을 이용하여 백제는 신라 서쪽의 7성을 빼앗는 등의 침입이 계속되었고, 김유신의 활약으로 이를 물리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와 같이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되어 대백제전을 주도한 이후부터 백제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이전의 방어적인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특히 644년에 백제의 가혜성 등 7성을 빼앗으며 가혜진을 개통하였는데, 이것은 백제에게 빼앗긴 대야성을 탈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³⁰⁾ 이로써 신라는 대백제전

27)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5년 여름 5월.

28) 최희준은 신라가 가혜성 등 7성을 빼앗은 것은 향후 대고구려전 출병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백제의 역습에 대비하여 서쪽 변경의 보다 안정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인 방비책이라고 하였다(최희준, 「644년 당의 대고구려전 파병 요구와 신라의 대응」, 『신라사학보』 54, 2022, 19~21쪽). 그러나 당시 신라가 이러한 문제까지 염두해 두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2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4년 여름 5월에는 3만 명으로, 『구당서』 권 199 (상), 열전149 (상), 동이 신라 및 『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 신라에는 5만 명으로 기록되었다.

30) 박승범, 앞의 논문, 2015, 375쪽.

에서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는 진덕왕대에 김유신의 활발한 활동으로 나타났다.

선덕왕대 김유신의 활동은 대내적인 문제에서도 대백제전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647년(선덕왕 16)에 상대등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것을 김유신이 진압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C-1. 봄 정월에 비담과 염종 등이 말하기를 “여자 임금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女主不能善理].”라고 하며 반역을 꾀하여 군사를 일으켰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8일에 왕이 죽었다.³¹⁾

2. 정월 17일에 비담을 목 베어 죽였는데, 그에 연루되어 죽은 사람이 30명이었다.³²⁾

3. 16년 정미는 선덕왕 말년이고 진덕왕 원년이다. 대신 비담과 염종이 “여자 임금이 잘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며 군사를 일으켜 왕을 폐하려고 하니, 왕은 스스로 왕궁 안에서 방어하였다. 비담 등은 명활성에 주둔하고 왕의 군대는 월성에 머물고 있었다. 공격과 방어가 10일이 지나도 끝이 나지 않았다. … (김유신) 여러 장수와 병졸을 독려하여 힘껏 치게 하니, 비담 등이 패하여 달아나자 추격하여 목을 베고 9족을 죽였다.³³⁾

위의 기록은 상대등 비담의 반란에 대한 내용이다. 645년 5월에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신라는 이에 호응하여 군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은 실패로 끝났고, 백제는 이 틈을 이용하여 신라 서쪽의 7성을 빼앗았다. 결국 신라는 아무런 이득 없이 피해만 입는 최악의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해 11월에 이찬 비담이 상대등이 되었다.

3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6년 봄 정월.

3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원년 정월 17일.

33)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비담이 상대등이 된 것은 당시 대당외교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주목되는 것은 비담이 상대등이 된 이후 646년의 기록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이다.³⁴⁾ 비담은 645년 11월에 상대등이 되었고, 647년 정월에 반란을 일으켰다. 따라서 646년에 발생하였던 어떤 일이 비담이 반란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여주불능선리’였기 때문에 646년에 발생하였던 어떤 일은 이와 관련된 문제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비담은 “여주불능선리”를 주장하며, 선덕왕의 후임과 관련된 왕위계승 문제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아닐까 한다.³⁵⁾

비담의 반란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비담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김유신의 활동만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 위의 사료 C-3에는 김유신이 여러 장수와 병졸을 독려하여 비담의 반란을 진압하였고, 여기에 참여하였던 다른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김유신의 활동을 부각하여 영웅화시키기 위한 후대의 수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선덕왕대 말년이 되면 그는 이미 정계의 실세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유신은 642년에 압량주 군주가 되어 대백제전을 주도하면서³⁶⁾ 중요한 실세로 급부상하였기 때문에 비담의 반란도 그가 진압하였던 것 같다. 물론 여기에는 631년(진평왕 53)에 칠숙의 모반 사건을 진압하였던 경험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와 같이 선덕왕대 김유신에 대한 기록은 642년 대야성이 함락된 이후 김춘추의 고구려 사행과 관련하여 다시 등장하였다.

34) 김덕원, 앞의 책, 2007, 197쪽.

35) 김덕원, 「신라 중고기 반란의 원인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38, 2008 ; 앞의 책, 2021, 105~110쪽.

36) 박승범은 김유신은 선덕왕 말년부터 전쟁을 전담하다시피 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박승범, 앞의 논문, 2015, 370쪽), 642년에 압량주 군주가 된 이후가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김유신은 압량주 군주가 되어 대백제전을 주도하며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대백제전에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이었다. 이러한 대백제전의 활동을 바탕으로 정계의 실세가 되어 비담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후 진덕왕대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3. 진덕왕대 초기의 공세 강화

백제의 침입은 진덕왕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진덕왕대의 대백제전은 647년(진덕왕 원년)부터 649년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³⁷⁾ 이후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주목되는 것은 대백제전에 대한 기록이 648년을 기준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덕왕대의 대백제전은 648년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648년 이전의 대백제전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D-1. 겨울 10월에 백제 군사가 무산성·감물성·동잠성의 3성을 에워쌌으므로, 왕이 유신을 보내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막게 하였다. 고전하여 기운이 다 빠졌는데, 유신의 부하 비령자와 그의 아들 거진이 적진에 들어가 급히 공격하다가 죽으니, 무리들이 모두 분발하여 쳐서 3천여 명을 목 베었다.³⁸⁾

2. 겨울 10월에 장군 의직이 보병과 기병 3천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무산성 아래로 나아가 주둔하고, 군사를 나누어 감물성과 동잠성 두 성을 공격하였다. 신라 장군 유신이 친히 군사를 격려

37) 이문기는 640년대 말의 전쟁부터 본격적인 신라의 “삼국통일(통합)전쟁”의 개시로 이해하였다(이문기, 앞의 논문, 2016, 197~198쪽).

3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원년 겨울 10월.

하여 죽기를 결심하고 싸워 크게 깨뜨리니, 의직은 한 필을 말을 타고 혼자 돌아왔다.³⁹⁾

3. 겨울 10월에 백제 군사가 무산성·감물성·동잠성 등 3성을 공격하여 포위하자 왕이 유신으로 하여금 보병과 기병 도합 1만 명을 이끌고 막게 하였으나 고전하여 기세가 꺾이자 유신이 비령자에게 말하기를 … 군사들이 이를 바라보고는 감동하고 격분하여 다투어 진격하여 적병을 크게 물리쳤다. 이 전투에서 3천여 명을 목 베었다.⁴⁰⁾

4. … 진덕왕 원년 정미에 백제가 많은 군사로 무산성·감물성·동잠성 등을 공격하여 오자 유신이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막았는데, 백제 군사가 매우 날쌔어 고전하고 이기지 못하여 사기가 떨어지고 지쳤다. 유신은 비령자가 힘써 싸우고 적진 깊이 들어갈 뜻이 있음을 알고 불러 말하기를 … 군사들이 세 사람의 죽음을 보고 감격하여 다투어 나가니, 향하는 곳마다 적의 칼날을 꺾고 진을 함락하여 적병을 대패시켜 3천여 명을 목 베었다. …⁴¹⁾

위의 기록은 647년에 무산성 등 3성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다. 백제의 보병과 기병 3천여 명이 무산성 등 3성을 침입하자 김유신은 보병과 기병 1만여 명으로 이를 방어하였다. 신라의 병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군사들이 매우 날쌔었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기세가 꺾였다. 위의 사료 D-3의 “죽기를 결심하고 싸워[決死而戰]”라는 기록과 같이 신라는 크게 고전하였다. 이때 김유신의 명을 받은 비령자의⁴²⁾ 활약으로 결국 신라는 백

39)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7년 겨울 10월.

40)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41) 『삼국사기』 권47, 열전7, 비령자.

42) 비령자를 김유신의 소모병(노태돈, 「나대의 문객」, 『한국사연구』 21:22, 1978 ;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2009, 262쪽)이나 김유신의 사병(박순교, 『김춘추의 집권과정 연구』, 지성인, 2018, 168쪽 주 143) 참조, 또는 김유신의

제를 크게 물리치는 성과를 거두었다.⁴³⁾

647년에 발생하였던 무산성 등 3성의 전투는 진덕왕대에 발생하였던 최초의 대백제전이였다. 이 전투는 백제의 침입으로 비롯된 것으로 선덕왕대 대백제전의 연속선상에 해당한다. 다만,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된 이후부터는 많은 성과를 거두며 승리한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대백제전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648년 이후의 대백제전은 647년과는 또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E-1-1. 3월에 백제 장군 의직이 서쪽 변경을 침공하여 요거성 등 10여 성을 함락하였다. 왕이 이를 근심하여 압독주도독 유신에게 명하여 이를 도모하게 하였다. 유신은 이에 사졸을 타이르고 격려하여 거느리고 나아갔다. 의직이 이에 대항하자 유신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협격하였다. 백제 군사가 패하여 달아나니 유신은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여 거의 다 죽였다.⁴⁴⁾

1-2. 봄 3월에 의직이 신라 서쪽 변방의 요거성 등 10여 성을 습격하여 빼앗았다.⁴⁵⁾

2-1. 그때 유신은 압량주 군주로 있었는데, 마치 군사에 뜻이 없는 것처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놀며 몇 달을 보내니, 주의 사람들이 유신을 용렬한 장수라고 생각하여 헐뜯어 말하기를 ... (유신이) 주의 군사[州兵]를 선발 훈련시켜 적에게 나가게

남도(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 (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813쪽)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43) 김유신은 위기 상황에 처하면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여 극복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김복순, 「김유신(595~673) 활동의 사상적 배경」, 『신라문화』 31, 2008 ; 『신라 사상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6, 232쪽 ; 이상훈, 앞의 논문, 2016, 45쪽 주 66) ; 장창은, 「4~7세기 삼국 간 전쟁포로의 동향과 그 의미」, 『선사와 고대』 67, 2021, 265쪽).

4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 3월.

45)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8년 봄 3월.

하여 대량성에 이르니, 백제가 맞서 대항하였다. 거짓으로 이기지 못하는 척하여 옥문곡까지 후퇴하니, 백제가 가볍게 보아 대군을 이끌고 왔으므로 복병이 그 앞뒤를 공격하여 크게 물리쳤다. 백제 장군 8명을 사로잡았고, 목 베거나 포로로 잡은 수가 1천 명에 달하였다. 이에 사신을 백제 장군에게 보내 말하기를 “우리 군주 품석과 그의 아내 김씨의 뼈가 너희 나라 옥중에 묻혀 있고, 지금 너희 비장 8명이 나에게 잡혀 있어 앞드려 살려달라고 하고 있다. … 그대가 죽은 두 사람의 뼈를 보내 살아 있는 8명과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 이에 품석 부부의 뼈를 파내어 관에 넣어 보냈다. … 46)

2-2. 여름 4월에 옥문곡으로 군사를 나아가게 하니, 신라 장군 유신이 맞아 두 번 싸워 크게 이겼다.⁴⁷⁾

3. 드디어 승리의 기세를 타고 백제의 영토에 들어가 악성 등 12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2만여 명을 목 베고 9천 명을 사로잡았다. 공로를 논하여 이찬으로 승진되고 상주 행군대총관에 임명되었다.⁴⁸⁾

4. 다시 적의 영토에 들어가 진례성 등 9성을 무찔러 9천여 명을 목 베고 6백 명을 포로로 잡았다.⁴⁹⁾

5-1. 가을 8월에 백제 장군 은상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석토성 등 7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왕이 대장군 유신과 장군 진춘, 죽지, 천존 등에게 명하여 나아가 막게 하였다. 이곳저곳 이동하며 10여 일 동안 싸웠으나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도살성 아래 나아가 주둔하였다. 유신이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늘 틀림없이 백제인이 와서 염탐할 것이다. 너희들은 짐짓 모르는 척하고 함부로 검문하지 말라.”고 하였다. … 이에 유신 등이 진격하여 크게 이겨 장사 1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군졸 8,980명의

46)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47)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8년 여름 4월.

48)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49)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목을 베었으며, 전마 1만 필을 획득하였고, 병기와 같은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⁵⁰⁾

5-2. 가을 8월에 왕이 좌장 은상을 보내 정예 군사 7천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석토성 등 7성을 공격하여 뺏어갔다. … (은상이) 이롭지 못하므로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여 도살성 아래에 진을 치고 다시 싸웠으나 우리 군사가 패하였다.⁵¹⁾

5-3. 태화 2년 가을 8월에 백제 장군 은상이 석토성 등 7성을 공격하여 왔다. 왕은 유신과 죽지, 진춘, 천존 등의 장군에게 명하여 나가 막게 하였다. 3군을 나누어 다섯 방면으로 그들을 공격하였으나, 서로의 승부가 10일이 지나도록 나지 않았다. … 이에 도살성 아래에 진을 쳐서 말을 쉬게 하고 군사를 잘 먹여 다시 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때 물새가 동쪽으로 날아 유신의 군막을 지나가니 장군과 병사들이 보고 불길한 징조라고 말하였다. 유신이 이는 괴이하게 여길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무리에게 이르기를 “금일 반드시 첩자로 오는 백제인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짐짓 모르는 척하고 검문하지 말라.”고 하였다. … 이에 유신 등은 일시에 분발하여 공격해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장군인 달솔 정중과 군사 100명을 사로잡았으며, 좌평 은상과 달솔 자견 등 10명과 병졸 8,980명을 죽이고, 말 1만 필과 갑옷 1,800벌을 획득하였다. 그 밖의 (획득한) 각종 기계들도 이와 비슷하였다. 돌아오다가 길에서 항복해 오는 백제의 좌평 정복과 병사 1천 명을 만나자 모두 석방하여 각자 가고 싶은 대로 맡겼다.⁵²⁾

위의 기록은 648년 이후의 대백제전에 대한 내용이다. 648년에는 4차례의 대백제전이 발생하면서 횡수와 규모가 상당하였다. 특히 648년 4월에는 진덕왕대 최초로 백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도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648년은 김춘추가 대당외교를 전

5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3년 가을 8월.

51)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9년 가을 8월.

52) 『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중).

개하였던 시기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648년의 대백제전은 김춘추의 대당외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648년의 대백제전은 김춘추가 추진하던 대당외교의 계획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김유신은 대야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사료 E-2-1에서와 같이 압량주 주민들의 인심을 확인하였고,⁵³⁾ 그 결과 성공할 수 있었다.⁵⁴⁾ 이 과정에서 옥문곡에서 백제 장군 8명을 생포하여 품석 부부의 유해와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외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⁵⁵⁾ 또한 승리의 기세를 타고 백제의 영토를 침입하여 악성 등 12성과 진례성 등 9성 등 21성을 함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약 2만 9천여 명의 목을 베고 9천 6백여 명을 포로로 잡는 등 약 4만여 명의 병력 손실을 입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이 김유신은 김춘추가 대당외교를 전개할 때 대내적으로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백제전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김춘추가 대당외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김유신은 김춘추의 대당외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백제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실제로 김춘추의 대당외교에도 유용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53) 사료 E-2-1에서 압량주 주민들이 김유신을 용렬한 장수라고 생각하고 헐뜯어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사료 E-1-1의 ‘타이르고 격려하여(訓勵)’라고 하며 인심을 바꾸었다.

54) 이문기는 대야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648년 정월 무렵에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로 재취입한 것으로 파악하였다(이문기, 앞의 논문, 2016, 222쪽). 김유신은 642년에 압량주 군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약 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재입한 것이 된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취입한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한다.

55) 품석 부부 유해의 반환은 처음의 계획에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백제 장군 8명을 생포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품석 부부의 유해와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백제 장군 8명을 생포하지 못하였다면 품석 부부의 유해를 반환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품석 부부의 유해와 백제 장군 8명과의 교환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김유신이 즉흥적으로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 태종 황제가 “너희 나라 유신의 명성을 (내가 이미) 들었는데, 그 사람됨이 어떠한가?”라고 하니, (김춘추가) 대답하기를 “유신은 비록 다소의 재주와 지략이 있으나 만약 황제의 위엄을 빌리지 않으면 어찌 쉽게 걱정거리인 이웃 나라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⁵⁶⁾

위의 기록은 당 태종이 김유신에 대해서 문의한 내용이다. 당 태종은 이미 김유신에 대한 명성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김춘추에게 그의 사람됨에 대해서 다시 문의하여 확인하였다. 이때 김춘추는 김유신의 대백제전에서의 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당 태종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김유신의 대백제전에서의 활동은 김춘추의 대당외교에도 영향을 주었으며,⁵⁷⁾ 나당동맹이 성립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648년에 이루어진 김유신의 대백제전은 김춘추의 대당외교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것은 김춘추가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기 이전에 이미 김유신과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 648년에 당으로 떠나기 전에 아마도 김춘추와 김유신은 만났던 것 같다. 이것은 642년에 고구려로 떠나기 전에 김춘추와 김유신이 만났던 사료 A-2의 기록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이때의 만남에서 김춘추는 대당외교의 성공을, 김유신은 대백제전의 성공을 약속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때에도 역시 삼혈을 하

56)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57) 김수태, 앞의 논문, 2022, 124쪽. 김수태는 태종대에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전략으로 수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 의지가 너무나 강하였으며, 실제로 649년에 이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되었다. 따라서 당의 전략 수정은 고종대인 65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김덕원, 「나당동맹의 전개 과정」, 『한국전통문화연구』 30, 2022b, 129~130쪽).

면서 서로 다짐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실은 당에서 돌아온 이후에 김춘추와 김유신이 다시 만났을 때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G. 춘추가 당에 들어가 군사 20만을 얻기를 청하고 (신라로 돌아와서) 유신을 만나 말하기를 “사람이 살고 죽는 데에는 명이 있어 살아 돌아와 다시 공을 만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라고 하니, 유신이 답하기를 “저는 국가의 위엄과 명령의 힘에 의지하여 두 번이나 백제와 크게 싸워 20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3만여 명을 목 베거나 포로로 잡았고, 또 품석공과 그 부인의 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늘이 도와주었기 때문이지 내가 무슨 힘이 되었겠습니까?”라고 하였다.⁵⁸⁾

위의 기록은 당에서 돌아온 이후에 김춘추와 김유신의 만남에 대한 내용이다. 648년에 김춘추는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그해 12월에⁵⁹⁾ 당에 도착하였다. 당시 견당사는 대체로 3개월, 평균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는데,⁶⁰⁾ 아마도 김춘추는 648년 9~10월 무렵에는 신라에서 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춘추는 당에 도착한 이후 649년 정월에 당 태종과의 면담에서 나당동맹이 성립되었다.⁶¹⁾ 이후 2월에 당에서 출발하여⁶²⁾ 4~5월 무렵에는 신

58)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59) 『구당서』에는 윤12월로 기록되었다(『구당서』 권3, 본기3, 태종 정관 22년 윤12월 계미).

60) 권덕영, 『고대한중외교사』, 일조각, 1997, 220쪽 및 230쪽.

61) 나당동맹은 648년에 성립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648년에 나당동맹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결론론적인 이해이다. 당에 사신으로 파견된 이후 성공한 결과를 ‘기대’하거나 ‘희망’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다. 오히려 당 태종의 3가지 계책 등 이전의 사례를 참조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49년에 나당동맹이 성립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648년에 나당동맹이 성립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김덕원, 앞의 논문, 2022a, 31~32쪽).

라에 도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사료 G는 4~5월 무렵의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료 G의 기록은 김춘추가 당에 체류하고 있었을 때 발생하였던 대백제전의 성과를 김유신이 보고하는⁶³⁾ 형식인 것 같다.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유신이 백제와 크게 싸운 것은 ‘두 번’이라고 한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이라고 한 것은 악성 등 12성과 진례성 등 9성 전투를 의미한다.⁶⁴⁾ 648년에는 ‘두 번’의 전투뿐만 아니라 3월의 오거성 등 10여 성 전투와 4월의 대량성 전투 등 총 4회의 전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량성 전투는 언급하지도 않고, 굳이 ‘두 번’의 전투라고 한 것은 아마도 악성 전투와 진례성 전투는 김춘추가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악성 전투와 진례성 전투는 김춘추가 당으로 떠났던 9~10월 이후에 발생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와 함께 김유신은 품석 부부의 유해를 반환받은 것도 이야기하였는데, 이것 역시 위와 같은 상황인 것 같다. 즉 김유신은 대야성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생포한 백제 장군 8명과 품석 부부의 유해를 교환하자고 백제에 제의하였다. 당시 백제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의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것이다. 김춘추도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어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대당외교를 위하여 당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품석 부부의 유해가 반환된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품석 부부의 유해 반환도 9~10월 이후에 발생

62) 『책부원귀』에는 649년 2월에 환국한 것으로 기록되었다(『책부원귀』 권109, 제왕부, 연향1, 정관 23년 2월 계사).

63) 이문기는 이때 대화의 주요 내용은 김춘추의 성공적인 외교활동에 대한 述懷와 김유신의 대백제전 전과에 대한 自評이라고 하였다(이문기, 앞의 논문, 2016, 226쪽).

64) 장창은, 앞의 논문, 2021, 246쪽. 한편, 이문기는 ‘두 번’의 전투는 옥문곡 전투와 악성 등 12성 공함이라고 하였다(이문기, 앞의 논문, 2016, 226쪽). 그러나 김춘추가 이미 알고 있는 악성 등 12성 공함에 대한 결과를 굳이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백제는 악성과 진례성 등에서 많은 피해를 당한 이후 병력 충원의 차원에서 품석 부부의 유해를 반환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김유신이 “한 티끌이 쌓인다고 하여 큰 산이 불어나지 않는다[一塵集 大山無所增]”라고⁶⁵⁾ 말한 사실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649년에도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여 석토성 등 7성을 함락시켰고, 이에 신라는 김유신 등을 보내 막게 하였다. 그런데 649년의 전투 기록에서 몇 가지 내용들이 주목된다. 먼저 이때의 전투에는 김유신 이외에도 진춘, 죽지, 천존 등이 함께 출정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전까지의 전투에는 김유신만이 기록되었지만, 이때 처음으로 다른 인물들도 함께 기록되었다. 당시 신라 군제의 개편과 더불어 백제의 병력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신라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당시의 전투 상황이 신라군과 백제군이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며 10여 일 동안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아 도살성⁶⁶⁾ 아래에 진을 쳤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는 백제의 첩자를 이용한 反間計를 사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승리하였다.

다른 하나는 김유신이 출전한 전투에서 처음으로 첩자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삼국은 첩자를 활용한 첩보전에 적극적이었으며, 김유신 역시 고도의 심리전과 첩자를 활용한 첩보전에 능하였다.⁶⁷⁾ 이것은 김유신이 화랑일 때 첩자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65)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66) 김병남은 649년에 백제의 석토성과 도살성 공격은 한강유역으로 통하는 신라 교통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고구려와 상호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신라를 공격한 것이라고 하였다(김병남, 『문헌기록에 보이는 백제와 신라 교전 지역의 이해』, 『전북사학』 70, 2024, 26~27쪽).

67) 주 16) 참조.

H. (유신낭은) 나이 18세가 되던 임신에 검술을 닦아 국선이 되었다. 이때 백석이란 자가 있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으나 여러 해 동안 (유신낭의) 화랑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 (유신)낭이 고구려와 백제를 치려고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백석이 그 계략을 알고 (유신)낭에게 고하기를 “제가 청컨대 공과 함께 은밀히 저편을 먼저 정탐한 후에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유신)낭이 기뻐하며 친히 백석을 데리고 밤에 길을 떠났다. ... 68)

위의 기록은 김유신과 백석에 대한 내용이다. 609년(진평왕 31)에 김유신은 15세의 나이에 화랑이 되었다. 이때 고구려와 백제 등이 신라의 국경을 침입하자 이들을 평정할 뜻을 품고 611년에는 중악 석굴에서, 612년에는 열박산에서 수련하였다.⁶⁹⁾ 특히 18세 때인 612년에는 자신의 낭도인 백석과 함께 고구려를 정탐

68) 『삼국유사』 권1, 기이2, 김유신.

69) 『삼국사기』 김유신전에는 김유신이 17세와 18세 때 각각 중악 석굴과 열박산에서 홀로 수련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김유신의 단독 수련이 아니라 그의 무리 즉 용화향도와 매년 함께 하였던 정례적인 수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련 과정에서 김유신은 낭도들과 신의를 맺으며 교류하였고, 낭도들에게는 그가 경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이후 김장청이 김유신의 『행록』을 저술할 때 그를 영웅화시키기 위하여 신이한 행적이 가미되면서 김유신의 단독 수련으로 바뀌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김유신의 낭도 중에서 기록에 전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662년(문무왕 2)에 68세의 김유신이 평양으로 군량수송을 할 때 함께 출전하였다. 노태돈은 김유신과 열기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아 화랑과 낭도의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고 하였다(노태돈, 앞의 논문, 1978 ; 앞의 책, 2009, 261쪽 주 27) 참조). 그러나 김유신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대와 더불어 놀 때[吾少與爾遊]”라고 말하였던 기록을 따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김유신의 승려낭도는 그와 일찍부터 두텁게 교류하였던 『삼국유사』 밀본최사에 기록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늙은 거사[一老居士]’였을 것으로 보인다(『삼국유사』 권5, 신주6, 밀본최사). ‘거사’라는 표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원효가 스스로 ‘소성거사’라고 하였던 사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려고 시도하였다.⁷⁰⁾ 아마도 당시 수가 고구려를 정벌하자 고구려의 대내적인 상황을 정탐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석은 고구려의 첩자였는데, 김유신을 유인하여 고구려로 납치하기 위하여 그의 낭도로 있었다. 그러나 김유신은 나림·혈레·골화 등 3곳의 호국신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어린 김유신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자 첩자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⁷¹⁾ 즉 김유신은 백석의 꾀임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하였던 경험을 통하여 일찍부터 첩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첩자들을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실제 전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주목되는 것은 백석의 연령과 관련된 문제이다. 사료 H에는 백석이 ‘여러 해 동안 화랑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屬於徒中有年]’라고 기록되었다. 화랑도는 청소년 수련단체로서 15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약 3년 정도 수련하였고,⁷²⁾ 백석도 김유신의 낭도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역시 청소년이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당시 고구려의 첩자 활동은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 차원을 넘어서 적국의 요인을 제거하거나 포섭하는 적극적인 차원으로까지 발전하였다는 견해가 있다.⁷³⁾ 백석도 잠재적인 적국의 요인인 김유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납치를 시도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첩자 활동을 청소년인 백석이 수행할 수 있었을지

70) 백석과 관련된 설화에 대한 연구는 이문기, 『『삼국유사』 기이편 「김유신」조의 재음미』,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39, 2018, 26~31쪽 참조.

71) 김영수, 앞의 논문, 2007, 38쪽.

72) 주 4) 참조.

73) 서의식, 「김유신」, 『한국사인물열전』 1, 돌베개, 2003, 78~79쪽 ; 김영수, 앞의 논문, 2007, 40쪽.

의문이 든다.⁷⁴⁾ 따라서 백석은 청소년인 일반 낭도보다는 연령이 좀 더 많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⁷⁵⁾

이와 같이 648년 이후의 대백제전은 김춘추가 전개하였던 대당외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김유신이 활동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648년에 대야성의 탈환을 계기로 신라는 대백제전에서의 우위를 점하였고, 백제의 서남쪽에 이어 서북쪽으로 진출하면서 신라와 백제의 전세는 역전되었다.⁷⁶⁾ 이 과정에서 김유신은 백제에게 병력면에서 큰 피해를 입히면서 이후 전쟁의 판세에 영향을 주었다.

648년 3월의 요거성 등의 전투에서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백제군을 거의 다 죽였으며, 4월의 옥문곡 전투에서는 1천여 명을 목 베거나 포로로 잡았다. 또한 악성 등 12성의 전투에서 2만여 명을 목 베고 9천 명을 사로잡았고, 진례성 등 9성의 전투에서는 9천여 명을 목 베고 6백 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리고 649년 8월의 도살성 전투에서는 장사 1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군졸 8,980명을 목 베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와 같이 648년 이후의 대백제전에서 김유신은 백제의 군사 약 4만 9천여 명을 목 베거나 사로잡았다. 여기에 정확한 인원을 알 수 없는 요거성 전투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 인원은 약 5만 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가 과장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⁷⁷⁾ 649년의 도살성 전투와 같이 8,980명

74) 백석이 여러 해 동안 김유신의 낭도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는 고구려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철자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75) 이와 관련하여 화랑보다 낭도의 연령이 더 많았을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참조된다(이순근, 「신라 귀족세력과 결합한 무인세력」, 『성심여자대학논문집』 23, 1991, 62쪽 ; 이종욱, 「신라 중고시대의 화랑도」, 『성곡논총』 27-4, 1996, 635쪽 ; 조병환, 「신라 중고기 낭도와 화랑」, 『한국고대사연구』 52, 2008, 428~429쪽).

76) 이상훈, 앞의 논문, 2016, 44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21, 260쪽.

77) 이문기, 「사비시대 백제의 군사조직과 그 운용」, 『백제연구』 28, 1998, 280쪽 ;

이라고 자세한 숫자를 기록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제의 병력이 많은 피해를 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백제 사비기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최대 4만 명 정도였음을⁷⁸⁾ 감안하면, 백제의 병력 손실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649년 이후 백제의 침입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한다.⁷⁹⁾ 이때 백제는 많은 병력을 손실하며 전력이 약화되었고, 이것은 이후 백제 멸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⁸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진덕왕대의 대백제전은 이전의 선덕왕대와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첫째, 선덕왕대에는 대체로 방어적인 면을 보였지만, 진덕왕대에는 648년에 대야성을 탈환하면서 공격적으로 전환하였다.⁸¹⁾ 둘째, 선덕왕대에는 비교적 소규모 전투 위주로 발생하였지만, 진덕왕대에는 대규모 전투로 확대되었다. 셋째, 진덕왕대에는 압량주민들을 훈련시키는 등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넷째, 선덕왕대에 비해 진덕왕대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비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경주사학』 23, 2004 ;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2006, 430~431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21, 257쪽

78) 강종원, 「백제 사비기 군사 운용체계의 변화와 황산벌 전투」, 『백제학보』 22, 2017, 81~82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21, 262쪽.

79) 649년에 김유신이 스스로 항복해 온 백제의 좌평 정복과 병사 1천 명을 풀어준 것은 이 병사들이 정예군이 아니라 임시로 선발된 노약한 疑兵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는(이문기, 앞의 논문, 1998, 279~280쪽)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기록은 당시 백제의 병력이 부족하였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80) 장창은은 백제가 642년 이후 660년에 멸망할 때까지 5회에 걸쳐 10,729명의 포로를 빼앗겼는데, 이러한 전쟁포로의 동향을 통해서 백제 멸망의 전조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장창은, 앞의 논문, 2021, 260쪽). 그러나 전쟁포로보다는 목 베어 [斬首] 죽인 군사 숫자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81) 김병남은 647~649년 사이의 전투는 백제의 선공→신라의 반격 성공이라는 양국 간의 전쟁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김병남, 앞의 논문, 2024, 26쪽). 그러나 648년에는 신라의 선공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담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 김유신이 진덕왕대에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결과로 보인다. 다섯째, 진덕왕대의 대백제전은 648년에 김춘추의 대당외교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졌다. 여섯째, 진덕왕대는 백제에게 병력면에서 큰 손실을 입혔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백제의 전력이 약화되면서 이후 백제 멸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선덕왕대 후기·진덕왕대 초기의 대백제전 양상

순번	왕대	연대		지역	형태	결과	내용	비고
		연	월					
1	선 덕 왕	643	11	당항성	신→백	(승?)	당에 구원 요청, 백제 철수	신본은 642년 8월, 고본은 643년 9월에 기록
2		644	9	가혜성	신→백	승	가혜성 등 7성 뺏음, 가해진 개통	선덕왕대 최초의 공격
3		645	정월	매리포성	신→백	승	2천 명 참수	
4			3	국경	신→백	(승?)	백제 후퇴	
5			5	국서 7성	신→백	패	7성 빼앗김, 김유신이 침입하나 승패는 미상	백본에는 김유신이 침입
6	진 덕 왕	647	10	무산성 등 3성	신→백	승	3천여 명 참수	
7		648	3	요거성 등 10성	신→백	패	요거성 등 10성 함락	
8			4	대량성, 옥문국	신→백	승	장군 8명 생포, 1천 명 참획	(9~10월 이후 품석 부부의 유해 반환)
9			(9~10 이후)	약성 등 12성	신→백	승	2만여 명 참수, 9천 명 생획	
10			(9~10 이후)	진례성 등 9성	신→백	승	9천여 명 참수, 6백 명 노획	
11		649	8	석토성 등 7성, 도살성	신→백	승	1백 명 생획, 8,980명 참수, 1천 명 석방	

범례 : 신본=『삼국사기』 신라본기, 고본=『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백본=『삼국사기』 백제본기

()는 추정

649년 이후에 백제의 침입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이에 짝하여 김유신에 대한 기록 역시 보이지 않는다. 신라는 백제의 침입으로부터 다소 여유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당제를 수용하며⁸²⁾ 한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김춘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국 그는 무열왕으로 즉위하였다. 김유신은 이러한 과정에서 김춘추의 즉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I-1. 진덕왕이 죽자 여러 신하들이 이찬 알천에게 섭정을 청하였으나, 알천이 굳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저는 늙고 이렇다 할 덕행이 없습니다. 지금 덕망이 높기는 춘추공 만한 이가 없으니, 실로 세상을 다스릴 뛰어난 인물이라 할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를 받들어 왕으로 삼으려 하니, 춘추는 세 번이나 사양하다가 마지못하여 왕위에 올랐다.⁸³⁾

2. 영희 5년에 진덕왕이 죽고 후계자가 없자 유신은 재상 이찬 알천과 논의하여 이찬 춘추를 맞이하여 즉위하게 하니, 이가 바로 태종대왕이다.⁸⁴⁾

3. (진덕)왕대에 알천공·임종공·술종공·호림공<자장의 아버지이다.>·염장공·유신공이 있었는데, 이들은 남산에 있는 오지암에 모여 나라의 일을 의논하였다. 이때 큰 호랑이가 나타나서 좌중에 뛰어들어 여러 공들이 놀라 일어났으나, 알천공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히 담소하면서 호랑이 꼬리를 붙잡아 땅에 매쳐 죽였다. 알천공의 완력이 이와 같았으므로 수석에 앉았으나 모두 유신공의 위엄에 복종하였다.⁸⁵⁾

82) 한준수, 「신라 진덕왕대 당제의 수용과 체제정비」, 『한국학논총』 34, 2010 ; 김덕원, 「신라 중대 초 당제의 수용과 정비」, 『신라사학보』 49, 2020 ; 박수정, 「7세기 전반 신라의 당 제도 수용과 그 의미」, 『신라사학보』 52, 2021.

8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즉위년.

84) 『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중).

85) 『삼국유사』 권1, 기이2, 진덕왕.

위의 기록은 김춘추의 즉위에 대한 내용이다. 진덕왕이 죽은 이후에 김유신은 알천과 같이 김춘추의 즉위에 깊이 관여하였다.⁸⁶⁾ 이것은 진덕왕대 김유신의 위상이 상당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역시 대백제전에서의 활동에서 비롯된 결과였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김유신의 위상은 사료 I-3의 오지암회의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⁸⁷⁾

당시 왕위계승의 최우선 순위는 알천이었지만, 김유신이 그와 논의한 이후에 김춘추가 즉위하였다. 즉 김유신은 새로운 왕이 선출되기 전에 알천과 담판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결과가 바뀌면서 김춘추가 즉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아마도 김유신의 위엄이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김유신이 김춘추가 즉위할 수 있도록 막후에서 킹메이커(kingmaker)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유신의 활동은 김춘추가 즉위한 이후의 중대에서는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덕·진덕왕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나타나게 된다.

4. 맺음말

신라 선덕왕대에 김유신의 활동은 642년(선덕왕 11)에 백제의 침입으로 대야성이 함락된 이후 압량주 군주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김유신이 대백제전을 주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86) 김병곤, 「신라 중대로의 전환기 알천의 역할과 위상」, 『신라문화』 40, 2012.

87) 박남수는 오지암회의가 선덕왕 즉위년부터 5년 사이에 개최된 것이라고 하였다(박남수, 「통일주도세력의 형성과 정치개혁」, 『통일기의 신라사회 연구』,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7 ;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주류성, 2013, 168쪽).

것이고, 이후 대백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신라는 642년 이전까지는 백제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으며 방어적인 입장이었지만, 644년부터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대백제전에서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선덕왕대 김유신의 활동은 대내적인 문제에서도 대백제전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647년(선덕왕 16)에 상대등 비담이 일으킨 반란을 김유신이 진압하며 이후 진덕왕대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진덕왕대의 대백제전은 647년(진덕왕 원년)부터 649년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647년 무산성 등 3성의 전투는 진덕왕대에 발생하였던 최초의 대백제전이었다. 그러나 백제의 침입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선덕왕대의 연속선상에 해당하지만, 김유신이 승리하였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648년의 대백제전은 김춘추의 대당외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648년의 대백제전은 김춘추가 추진하던 대당외교의 계획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김유신의 대백제전에서의 활동은 김춘추의 대당외교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나당동맹이 성립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648년에 대야성의 탈환을 계기로 신라는 대백제전에서의 우위를 점하였고, 신라와 백제의 전세는 역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유신은 백제에게 병력면에서 큰 피해를 입히면서 이후 전쟁의 판세에 영향을 주었다. 결국 백제는 많은 병력을 손실하며 전력이 약화되었고, 이것은 이후 백제 멸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진덕왕이 죽은 이후에 김유신은 새로운 왕의 선출과정에 관여하며 김춘추가 즉위할 수 있도록 막후에서 킹메이커(kingmaker)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김유신의 활동은 김춘추가 즉위한 이

후의 중대에서는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덕·진덕왕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나타나게 된다.

김유신에 대한 기록은 신이한 내용의 설화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활동을 살펴볼 때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김유신의 활동을 결과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과대평가하여 확대해석하는 면도 없지 않다.⁸⁸⁾ 따라서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서 김유신의 활동을 검토한다면, 좀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88) 이상훈은 김유신의 압량주 군주 임명과 관련하여 “... 신라 조정은 전쟁영웅인 김유신을 압량주 군주로 파견하여 방어를 강화했다. 일반 백성들도 김유신의 부임에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환영했음이 틀림없다.”라고 하였다(이상훈, 앞의 논문, 2016, 41쪽). 그러나 김유신은 629년 이후에 활동한 기록이 없으므로 ‘전쟁영웅’과 같은 표현은 결과론에 의거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낭비성 전투에서의 김유신의 활동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전쟁영웅’이라고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1. 저서

- 권덕영, 『고대한중외교사』, 일조각, 1997
G901:A-0008478864
- 김덕원, 『신라중고정치사연구』, 경인문화사, 2007
- 김덕원, 『신라 상대 정치와 불교』, 문현, 2021
- 김복순, 『신라 사상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6
G901:A-0006617859
- 노태돈,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2009
G901:A-0006207780
-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 박남수,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주류성, 2013
G901:A-0006456812
- 박순교, 『김춘추의 집권과정 연구』, 지성인, 2018
- 신형식, 『삼국사기연구』, 일조각, 1981
- 이기동,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G706+NLKF02-F.oaiInfo.CNTS-00006978788
- 주보돈,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2. 논문

- 강종원, 「백제 사비기 군사 운용체계의 변화와 황산벌 전투」, 『백제학보』 22, 2017
DOI : 10.23269/jbs.2017.22.79
- 김덕원, 「신라 진평왕대 김유신의 활동」, 『신라사학보』 10, 2007
G901:A-0002554243

- 김덕원, 「신라 중고기 반란의 원인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38, 2008
G901:A-0002487774
- 김덕원,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 『민족문화연구』 95, 2022a
DOI : 10.17948/kcs.2022..95.9
- 김덕원, 「나당동맹의 전개 과정」, 『한국전통문화연구』 30, 2022b
DOI : 10.23067/tjokch..30.202211.103
- 김병남, 「문헌기록에 보이는 백제와 신라 교전 지역의 이해」, 『전북사학』 70, 2024
G901:A-0011391745
- 김복순, 「김유신(595~673) 활동의 사상적 배경」, 『신라문화』 31, 2008
G704-001251.2008..31.008
- 김수태, 「신라의 삼국통일과 김유신」, 『영남학』 80, 2022
G901:A-0010661600
- 김영수, 「김유신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관한 일연구」, 『군사』 62, 2007
DOI : 10.29212/mh.2007..62.33
-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경주사학』 23, 2004
G901:A-0002020734
- 박남수, 「통일주도세력의 형성과 정치개혁」, 『통일기의 신라사회 연구』,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7
- 박승범, 「김유신의 생애와 역사적 의의 -그 가계와 활동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1, 2015
DOI : 10.16880/SEC.2015.61.12.351
- 서의식, 「김유신」, 『한국사인물열전』 1, 돌베개, 2003
- 이기동, 「신라 화랑도의 사회학적 고찰」, 『역사학보』 82, 1979
- 이문기, 「사비시대 백제의 군사조직과 그 운용」, 『백제연구』 28, 1998
G901:A-0001274570
- 이문기, 「648-649년 신라의 대백제전 승리와 그 의미」, 『신라문화』 47, 2016
G704-001251.2016.47..008

- 이상훈, 「삼국통일기 화랑정신과 김유신의 리더십」, 『국학연구론총』 17, 2016
DOI : 10.22861/tiks.2016..17.31
- 장창은, 「4~7세기 삼국 간 전쟁포로의 동향과 그 의미」, 『선사와 고대』 67, 2021
G901:A-0010599864
- 정구복, 「김유신(595~673)의 정신세계」, 『유산강인교수정년기념 동북아고문화논총』, 민창문화사, 2002
- 주보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 내정」 『한국학논집』 20, 1993
G901:A-0000983372
- 최희준, 「644년 당의 대고구려전 파병 요구와 신라의 대응」, 『신라사학보』 54, 2022
G901:A-0010706864

<Abstract>

Kim Yu-shin's activities in the King Seondeok and Jindeok period of Silla

– Focusing on the War against Baekje –

Kim, Deok-Won

Kim Yu-shin's activities began after Daeya Castle fell in 642, when he became the Abryangju gunju. This means that Kim Yu-shin became dedicated to the Daebaek Festival, and it later became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the War against Baekje.

Until 642, Silla was on the defensive, but began attacking Baekje in 644. Also, this was shown by Kim Yushin's active activities in the Jindeok period.

The War against Baekje of 648 was carried out in close connection with Daedang diplomacy promoted by Kim Chun-chu. Therefore, Kim Yu-shin's activities at the War against Baekje influenced Kim Chun-chu's diplomacy policy toward Tang, and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Silla-Tang Alliance.

With the recapture of Daeya Castle in 648, the civil war between Silla and Baekje was reversed. Baekje's power weakened due to heavy military damage, and this later became an important cause of its destruction.

Keywords: Kim Yu-shin, the War against Baekje, Daeya Castle, Kim Chun-chu, diplomacy policy toward Tang

